

Can I really trust God?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Saturday 26 September 2009

1. Trusting God is what we are designed to do.

우리는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진다.

•We have been created in the image of God (Genesis 1:27), and this means that we are designed to relate to God as our Father.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관계 되도록 만들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Adam was created as God's son (Luke 1:38), and as such, he was created trust God.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창조되었다 (누가 복음 1장 38절), 그리고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되었다.

-There is no imperfection in God, unlike our earthly fathers. He is the Perfect Father.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 안에서 불안전은 없다. 그는 완전한 아버지 이시다.

•We trust God our Father by believing his word, and by doing that which he says.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또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믿는다.

-Our first parents (inexplicably!) refused to trust God's word, and instead listened to the voice of God's enemy, Satan.

우리의 첫 번째 부모는 (애매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을 거절했고, 대신에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Ever since then, the human race has not really trusted God. We see him though our own shame, guilt and failure. In our sin we do not love God, so we do not trust him (Genesis 3:1-8).

심지어 그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수치와, 죄악 그리고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창세기 3장 1-8절).

•So we are in a confused situation. We are designed to trust God, but we do not.

그래서 우리는 혼란된 상황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This means we invent other 'gods' in whom we think we can trust. These 'gods' always leave us disappointed, and they suck the life out of us (Psalm 115:8; Habakkuk 2:18-20).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신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들'은 항상 우리를 실망시키고 떠난다. 그리고 그들은 삶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 버린다 (시편 115편 8절, 하박국 2장 18-20절).

-Or it means that we have to trust ourselves! This is not a good idea, as any view of human history will tell us!

혹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모든 관점이 우리에게 이야기 할 바와 같이 좋은 생각은 아니다!

2. *Jesus is the only man who has really trusted God.*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은 유일한 분이시다.

•Jesus is the exact image of God (Hebrews 1:1-4; Colossians 1:15-16).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5-16절).

-We have not seen God, but Jesus reveals him to us (John 1:18, 12:45; 14:8-9)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요한복음 1장 18절, 12장 45절, 14장 8-9절).

•Jesus trusted God at every point of his life, only ever doing that which the Father gave him to do (e.g. John 5:19, 30; John 12:49), even when it meant that he would suffer for our sakes (e.g. Luke 22:42).

예수님은 그의 생애 매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행하셨다.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 12장 49절), 심지어 그것은 우리의 용서를 위해 고통 받으실 것임을 의미했다 (누가 복음 22장 42절).

•He trusted God his Father, even as he was being crucified, and he kept entrusting himself to God the Father all the way though, until he defeated our sin and rested back in the arms of the Father in death (Luke 23:46; 1 Peter 2:21-25).

그는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물리치고 죽으셔서 아버지의 팔에 안겨 안식 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자신을 맡기셨다 (누가 복음 23장 46절, 베드로 전서 2장 21-25절).

-In this action Jesus bore our sins (all our hatred and distrust of God) away to judgment. He became our sin on the cross (2 Corinthians 5:21; Romans 8:3), and when he was raised up again, he showed that he had taken our sins away forever (Colossians 3:1-4).

이 행동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심판에서 사하셨다.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셨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로마서 8장 3절). 그리고 다시 부활했을 때, 그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음을 보이셨다 (골로새서 3장 1-4절).

•Now Jesus gives the Holy Spirit to us, teaching us to cry out 'Abba, Father', i.e. teaching us to love and to trust God as our Father too (Galatians 4:4-8).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 라 외치도록 가르치신다. 예)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믿으라고 가르치신다 (갈라디아서 4장 4-8절).

3. *So can I really trust God? The answer is "Yes... and you must!"*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대답은 "네...당신은 그래야만 합니다!"

•If we have any other 'god', it will destroy us. If we have an idol or so-called god, it will demand we keep feeding it (even if it is just an idol in our minds or imagination). God alone is good and he feeds us (Psalm 23).

만일 우리가 어떤 다른 '신'을 가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파괴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상이나 또는 소위 '신' 이라 불리 우는 것을 가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키우도록 강요할 것이다 (비록 그것이 단지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이나 형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우리를 기

르신다 (시편 23편).

-Most wonderfully he gives us the life of his own Son.

대단히 놀랍게도 그는 우리에게 아들의 삶을 주셨다.

•If God has given up Jesus to be crucified for us, then he will surely give us all we need, not only in this life, but even more in the life to come (Romans 8:14-39).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포기 하셨더라면, 그는 분명히 이 삶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올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로마서 8장 12-39절).

-We have no need to fear God our Father, and every reason to trust him!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믿어야 할 모든 이유이다.

-We come to trust him when we see how much he has loved us, even to the point of forgiving all our sins.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지를 알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는 부분에서도 그를 믿어야 한다.